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업계 채널 지각변동 촉발

설계사, 수당 많은 GA로 대이동... 보험사 유통망 흔들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사, 보험료에 회계기준까지 부담 이미 이탈 시작돼 추가적 대책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보험설계사 이탈을 겪고 상황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대규모 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증가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수고용직은 특정 회사에 소속돼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 반발이



상당하다.

보험업계가 유독 고용보험 의무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전체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지만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보험설계사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세금, 근로자성 증가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16.5%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38%)은 2배가 넘었다. '가입 여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45.5%)까지 합치면 83.5%가 사실상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부 주관으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설계사들의 대규모 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고 근로자성도 강화돼 설계사들의 자유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돼 겸업이 불가하다. 즉 전속돼 있는 보험사 외에도

른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행위는 겸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업 활동이 더 자유롭고 수당이 높은 독립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설계사가 늘어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미 설계사 이탈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12만2190명보다 4192명이 급감한 11만7998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만8729명이던 설계사 수는 2016년 12만6161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2년 약 3만명이었던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22만3000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가입을 꺼리는 설계사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떠나가는 설계사를 마냥 잡

아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연간 435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부담액은 6000억원대까지 증가한다. 지난해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이 7조 832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이 시급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까지 충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고정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도 "전속 설계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현대차 유럽 공략 '천군만마'

문 대통령, 수소차 '넥쏘' 깜짝 시승 보수시장 유럽서 독특한 홍보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파리 중심가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출한 '넥쏘' 수소 전기차를 탑승한 뒤 얼마 광장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보수적인 유럽시장에서 현대차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현지 1호 수출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깜짝 시승한 것에 대한 완성차 업계 반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파리 시내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시승 일정을 소화했다.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파리까지 와서 수소차를 시승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유럽 수소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적인 유럽시장, 긍정적 평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은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한국모두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대세라는 트렌드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제서야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실제 유럽 시장에서 SUV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으며 올해 볼보의 더 뉴 XC40이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프랑스 완성차업체인 푸조·시트로엥(PSA) 그룹은 최근 파리모터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시장에서 현대차가 수소전기차를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 대통령의 수소전기차 시승을 통해 독특한 효과를 본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완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트렌드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며 현지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서야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인 수소 전기차를 소개하는데 (문 대통령의 시승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내에서 현대차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2025년까지 유럽 수소차 5000대 보급 목표

현대차는 14일 프랑스에 2025년까지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일 프랑스 파리 웨스턴 방돔호텔에서 에어리퀴드, 엔지 등 프랑스 에너지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에어리퀴드는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보고 수소 분야에 투자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꼽힌다. 엔지는 에너지저장장치, 가스 생산 등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양성운 기자 ysw@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무료 자문, 휴양시설, 제휴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 11종의 사업성 경비 최대 5% 포인트 적립
- 병원·약국·대중교통 5% 할인
- 전 주유소 리터당 50원 할인
- 핸드폰 구매 시 요금할인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9988.or.kr) 복지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계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을 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